



지난 2000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조성된 나혜석 거리에는 우리나라 최초 서양화가이자 작가인 나혜석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조각과 조형물 등이 설치돼 있다.

견고히 닫혔던 문 100년만에 열렸다

화가·작가·사상가·독립운동가로 활동
위선·이중적인 남성 위주 문화에 저항
‘불륜녀’ 왜곡·편취...2000년에 재조명
수원 변화가에 나혜석 거리 조성
문예회관·효원공원·야외음악당 연결

마을 입은 모습은 전통적인 한국 여인상을 상징한다. 두 조형물은 당대의 분위기와 나혜석이 지향했던 세계 사이의 길항의 관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이 조각품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는데, 전통적 여인상 뒷면의 갈라진 벽을 통해서다. 생전의 나혜석이 부딪쳐야 했던 억압을 깨뜨린 진취적인 면모는 신여성의 이미지와 겹쳐져 적잖은 울림을 준다. 나혜석의 시 ‘인형의 가(家)’가 그 벽면에 새겨져 있다. 그 시의 모티프는 헨리 입센이 소설 ‘인형의 집’에서 차용했다. ‘누구의 아내 엄마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살고자 했던 주인공 노라의 절규’를 나혜석이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수하게 / 엄밀히 막아는 / 장벽에서 / 견고히 닫혔던 / 문을 열고 / 노라를 놓아주게.”



나혜석 생가터.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14> 서양화가 나혜석과 수원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는도다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의 길로 밟아서
사람이 되고저

<나혜석 ‘인형의 가(家)’ 중에서>

1948년 12월 10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죽었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객지를 떠돌다 병사한 이 여성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1896-1948)이었다.

공교롭게도 1948년은 새 헌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부가 들어선 그 해,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도 사람이다”를 외치며 당대 사회의 억압에 맞섰던 한 여성 지식인은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나혜석은 그 이전부터 출판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삶을 살아왔다.

한국 여성사와 미술사, 문학사, 사상사,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나혜석이다. 달리 말하면 그녀는 화가, 작가, 사상가, 독립운동가 등으로 매우 스펙트럼이 넓은 삶을 살아왔다.

이상경이 펴낸 ‘나혜석 전집’(태학사)에 수록된 그녀에 대한 평은 이렇다. “일류 화가, 작가, 사상가로 뚜렷한 자기 세계를 추구했던 여성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와 연애를 하고 ‘이혼 고백장’과 같은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신화’를 해체하는 작업을 그치지 않았던 그녀는 ‘100년을 앞서 살았던 여성’이었다.”

수원에는 나혜석 거리(팔달구 인계동)가 있다. 변화가에 자리한 터라 이곳은 늘 젊음이 약동한다. 인근에 문화예술회관, 효원공원, 야외음악당이 연결돼 있어 문화공간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

이곳에는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나혜석의 정신을 기리는 조형물이 들어서 있다. 서로 다른 이미지를 발현하는 두 개의 동상은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든다. 하나의 동상은 화구와 가방을 들고 먼 곳을 응시하는 신여성을 형상화한 것이다. 단발머리에 긴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에게선 단호하면서도 지적인 아우라가 배어나온다. 이와 달리 반대편에 자리한 여성은 다소곳이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이다. 쪽뿔 머리에 저고리와 치

나혜석거리는 지난 2000년 나혜석에 대한 재조명을 계기로 조성되었다. 2006년부터는 이곳에서 음식문화축제가 열려 젊은이들과 수원을 찾는 이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와 맛의 풍미를 선사한다.

그녀의 생이 조명되기 시작한 지는 대략 15년 남짓 된다. 그동안은 애곡된 이미지로, 과편화된 관점으로 나혜석을 규정해왔던 게 사실이다. 근대 이후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여성을 꼽으려면 나혜석을 빼놓을 수 없다. 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당대의 사회가 그만큼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나혜석은 군수를 지낸 관료의 딸로 태어나 19세에 동경여자미술학교에 유학했다. 귀국 후 서울 정선여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중, 1919년 3·1운동 때는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다. 당시 변론을 맡은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을 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후일 나혜석은 파리에서 최린과의 연애 사실이 드러나 이혼을 당하게 된다.

그녀는 ‘이혼고백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한다.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 한다.” 그녀의 말은 여성을 옹호하는 가부장적 시각에 대한 저항으로 읽힌다. 이후 그녀의 삶은 문화예술운동으로 지평이 확장된다. 그림과 글쓰기를 병행하면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남성 위주의 문화에 경종을 울린다.

나혜석 거리와 멀지 않은 곳에는 그녀의 생가 터가 있다. 행궁동에 자리한 생가터는 변화가의 나혜석거리와는 다른 문화적 정취를 발산한다. 이곳에는 인습과 제도의 굴레에 저항하고자 했던 나혜석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행궁동 나혜석 생가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작가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제를 꾸려오고 있습니다. 이곳 골목 벽



행궁동 벽화마을.

화들도 예술제 등을 계기로 탄생했지요. 나혜석을 모티프로 그녀의 생애도 기리고 지역 문화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혜석 생가터 문화예술제 총무를 맡고 있는 박호철 씨의 설명이다. 박 씨는 “생가터 일대는 나혜석이 유년시절을 보낸 곳으로 그녀의 숨결이 남아 있다”며 “예술제는 4월경에 펼쳐지는데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덧붙인다.

/수원=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휴·안·림**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식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폐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